



28일 군산 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열린 제1회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성과발표회 및 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연구개발 전시회를 둘러본 후 새만금산학융합원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자리에 모인 청년들과 '우리의 내일을 응원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군산,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 꿈꾼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성과발표회·간담회

전기차·스마트공장 등 연구 성과물 전시 '눈길'

송하진 도지사, 간담회에서 "전북의 미래·희망" 강조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산업·고용 위기지역인 군산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새만금산학융합지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새만금산학융합원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주관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된 '제1회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성과발표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김관영 국회의원(군산·바른미래당), 강임준 군산시장, 광병선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이사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참여대학교 교수,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 성과발표회는 올 한해동안 산학융합원에서 수

행된 주요 일자리창출, 기업지원사업 성과 50여점을 전시, 공유하고 학생기업분석경진대회, 송하진 지사와 청년들의 '담없는'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원장 임종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북산학융합촉진사업', '뿌리산업융합미니클러스터지원사업'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군산형 자동차 대체부품 일자리 생태계조성사업', '고창군로컬집센터사업', 전라북도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생태계구축사업', 군산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성과전시회에는 전북새만금산학융합지구기업연구관 1호 입주기업인 선박건조전문업체 (유)코스텍이 국내 최초로 제작한 'T-700 고성능 탄소섬유를 적용한 38t급 경량 플레저보트'를 비롯해 호원대학교 기계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작 전기자동차, 군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존슨미디어의 '코터기의 Heating Blower 개선 미디어소재', 스마트팩토

리 전문기업인 페스코의 '공장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IoT 진동 센서' 등 전기차, 탄소산업,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산학융합형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새만금산학융합원 청년들과의 '담없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산학융합지구 내에서 졸업생 2명이 각각 취·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고, 청년들이 안고 있는 취·창업의 고민을 산학연관 협력체에서 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전북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안타깝다.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며, "청년들의 꿈이 곧 전북의 미래이자 꿈이다.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가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김승수 전주시장, 국회서 문희장 국회의장 등 만나 예산 삭감 방지·증액 요청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을 위한 막바지 심사가 진행중인 국회에서 전주 발전을 이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예결소위심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시 갑)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시 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울 구로구 갑), 예결위원장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갑),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구 을)을 상대로 국회 예결위 심사에 상정된 전주시의 국비사업에 대한 삭감방지 및 추가 증액을 위한 당의성을 피력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산하위원회 예산심사 후 추가 반영된 △전주 로파크 건립(10억원)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130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3억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3억원) △기가지제 어린이 생태체험장 조성(7억) 등 주요사업 예산이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인 만큼 예결위 단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예결소위심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소외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시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소외된 전북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고, 국회와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예산심사 진행

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즉각적인 전략 수정과 함께 정점사업에 대한 논리보강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어렵게 증액된 사업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운상 기자

동감(冬感)전북... 겨울을 제대로 느끼자

완주 윈터푸드페스티벌 등 도내 5개 시군서 겨울축제 개최 전북도, 홍보책자 제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해 홍보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원을 빌면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나눠 주신다는 이야기를 믿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도내 시군에서는 겨울을 주제로 다양한 겨울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어른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줄 겨울축제는 12월 20일 '완주 윈터푸드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남원, 진안, 무주, 임실 등 5개 시군에서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개최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지난 7월 시군 공모를

통해 5개 겨울축제를 선정했으며, 모라모라 군고구마 굽기, 생생 얼음썰매, 얼음팽이대회, 크리스마스 벽화꾸미기 등 시군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겨울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특새시장 공략을 위해 시군 겨울축제와 가볼 만한 겨울 여행지 추천, 용산역 등 수도권 방문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0일에는 전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와 임실군이 함께 용산역을 방문하여 크리스마스를 제

대로 즐길 수 있는 산타축제와 시군 축제를 홍보할 계획이며, 시군 축제 정보와 겨울철 주요관광지 등을 일러스트 지도로 표현한 홍보책자인 '동감(冬感)전북'을 제작해 고속도로 휴게소, 시군 관광안내소와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해 겨울 여행지로 전북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실 산타축제의 경우는 임실군과 코데일이 함께 '케이티엑스로 떠나는 테마가자' 상품을 개발하여 축제기간(12.21~25)에 용산역과 익산역을 운행할 예정으로, 육정호 물안개길 트래킹과 산타축제 즐기기, 치즈 만들기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도 환절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에서 겨울남방과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올 겨울여행을 전북에서 할 것을 적극 추천했다. /김진성 기자



제11대 전주시의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전주시의회 본회의>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230-3731)>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시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안내 230-3713>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